



# 전설같은 후대사랑의 서사시 영원히 높이 울려퍼지리

##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60년 역사 를 더듬어

총연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이 언제나 격정속에 부르고 자식들에게도 피울처럼 심어주는 노래가 있다. 가슴마다에 공화국의 해외공민원 크나큰 궁지와 높은 시각을 불러 일으키는 강렬한 힘의 원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귀중한 생명수로 되어온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노래한 가요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 위라』이다. 떡 두산절세 위인들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가 드겁게 어여있어 제일동포들 누구나 나노래는 눈물없이는 부를수도 들을수도 없다고 격정속에 뇌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시었다.

『총애! 걸어온 자랑스러운 역사에는 총연을 전체 제일동포들의 권리와 의익을 대표하는 주체적 해외관민단체로 강화

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힘도와 크나큰 심혈과로 고가 깃들어있습 니다.』

주제 4 6 (1957)년 4월 19일, 이날은 제일동포들이 어머니 조국으로부터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 암울한 향으로 빛을 날았다. 이날평의 우리 동포들이 예나 지금이나 총연결성일 못지 않게 뜻깊게 기념하는 역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60년세월이 흘렀다.

그 성스러운 텐대기는 해외동포들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매우 두산절세위인들의 한없이 드거운 민족애와 동포애, 어머니 조국의 운에로움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사랑과 충정의 서사시이다.

### 세상에 없는 예산 항목

동서고금에 없는 예산항목이 우리 공화국의 국가에 산에 포함되어 60년간이나 실시되고 있다.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세상사람들 모두가 놀라워 거기에는 가슴벅거운 사연에 머물수도 읊어온 세상에 소리높이 구가하는 사랑과 충정의 서사시이다.

만나시였다. 그 정상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수령님께서는 수행일군들에게 『이것보오, 이때에게 신발 하나 신기지 뜻했는데 그래도 이에는 나를 보고 인사를 하오.』라고 하시며 한동안 멀 하늘 가을 바라보시였다. 그토록 당시 우리 민들의 생활은 몹시 어려웠고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조건도 불비하였다. 천생의 재덕미를 가지던 어린이지 부모들도 아이들도 일군들로 이어져 절망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두메 선율의 소년이 밤발로 학교가는 것을 두고 그토록 가슴마파하던 것이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보려고 모자를 쓰는 사람의 있었

다. 흥분증상임위원회의 정한 한수동지가 있다. 하리피를 졸라매고 북구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조직에서 돈을 끌어온들을 우리 동포들중 파악 그 누가 품걸에라도 생각해 보았다는가, 풀려내리는 눈물을 주면서 흥처며 한의 수동자는 뜻을 말리었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보려고 모자를 쓰는 사람의 있었

다. 흥분증상임위원회의 정한 한수동지가 있다. 하리피를 졸라매고 북구건설을 다그

치고 있는 조직에서 돈을 끌어온들을 우리

동포들중 파악 그 누가 품걸에라도 생각해

보았다는가, 풀려내리는 눈물을 주면서

흥처며 한의 수동자는 뜻을 말리었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보려고 모자를 쓰는 사람의 있었

다. 흥분증상임위원회의 정한 한수동지가 있다. 하리피를 졸라매고 북구건설을 다그

치고 있는 조직에서 돈을 끌어온들을 우리

동포들중 파악 그 누가 품걸에라도 생각해

보았다는가, 풀려내리는 눈물을 주면서

흥처며 한의 수동자는 뜻을 말리었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보려고 모자를 쓰는 사람의 있었

다. 흥분증상임위원회의 정한 한수동지가 있다. 하리피를 졸라매고 북구건설을 다그

치고 있는 조직에서 돈을 끌어온들을 우리

동포들중 파악 그 누가 품걸에라도 생각해

보았다는가, 풀려내리는 눈물을 주면서

흥처며 한의 수동자는 뜻을 말리었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보려고 모자를 쓰는 사람의 있었

다. 흥분증상임위원회의 정한 한수동지가 있다. 하리피를 졸라매고 북구건설을 다그

치고 있는 조직에서 돈을 끌어온들을 우리

동포들중 파악 그 누가 품걸에라도 생각해

보았다는가, 풀려내리는 눈물을 주면서

흥처며 한의 수동자는 뜻을 말리었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보려고 모자를 쓰는 사람의 있었

다. 흥분증상임위원회의 정한 한수동지가 있다. 하리피를 졸라매고 북구건설을 다그

치고 있는 조직에서 돈을 끌어온들을 우리

동포들중 파악 그 누가 품걸에라도 생각해

보았다는가, 풀려내리는 눈물을 주면서

흥처며 한의 수동자는 뜻을 말리었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보려고 모자를 쓰는 사람의 있었

다. 흥분증상임위원회의 정한 한수동지가 있다. 하리피를 졸라매고 북구건설을 다그

치고 있는 조직에서 돈을 끌어온들을 우리

동포들중 파악 그 누가 품걸에라도 생각해

보았다는가, 풀려내리는 눈물을 주면서

흥처며 한의 수동자는 뜻을 말리었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보려고 모자를 쓰는 사람의 있었

다. 흥분증상임위원회의 정한 한수동지가 있다. 하리피를 졸라매고 북구건설을 다그

치고 있는 조직에서 돈을 끌어온들을 우리

동포들중 파악 그 누가 품걸에라도 생각해

보았다는가, 풀려내리는 눈물을 주면서

흥처며 한의 수동자는 뜻을 말리었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보려고 모자를 쓰는 사람의 있었

다. 흥분증상임위원회의 정한 한수동지가 있다. 하리피를 졸라매고 북구건설을 다그

치고 있는 조직에서 돈을 끌어온들을 우리

동포들중 파악 그 누가 품걸에라도 생각해

보았다는가, 풀려내리는 눈물을 주면서

흥처며 한의 수동자는 뜻을 말리었다.

그때 흥분죽하던 청원들은 우리 수령님의

실종에 고마고 있는 가슴아픈 사연을 알 수

없었다. 아무리 나파살림이 어렵고 우리

아이들도 몬난한 속에서 풍부하고 있지만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자녀들을 위해 꿈을 주고받는 사이에 모두는 내가 조선공민으로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가에 대한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데친다.

온 동포사회가 각각과 홍보으로 설레이

면 그때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제일동포들의 열화와 같은 흥모와 간사의 정을 노래해 달아







